야구장 'IT도우미' 챙기세요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7일 목요일 제2958호 www.metroseoul.co.kr

'세월호' 침몰 연예계도 애도

280여 명 사망·실종 최악의 '참사'

462명 탄 여객선 '세월호' 진도 해상서 침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명 시신 확인…수색중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62명이 탄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오후 9시 현재 4명이 숨지고 28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74명은 구조됐다. 민·관·군·경은 선내 잔류자 수색을 일단 중단하고 주변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쾅' 소리 후 2시간 만에 침몰

16일 오전 8시 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채 2시간 20분 만에 수심 37m 해저로 침몰했다.

최초 신고는 오전 8시 52분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됐다. 그러나 1시간여 전부터 배가 기울어진 상태였다는 증언이 잇따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고 이후 미숙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배는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여객선에는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5명, 일반 승객, 선원 등 모두 462명이 탔으며 차량 150여대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파악하고 있다.

◆중대본 사고 파악하며 '우왕좌왕'

중대본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지만 집계 과정의 오류를 파악하고 164명으로 번복했다가 다시 174명으로 발표하는 등 종일 혼선을 빚었다.

전체 탑승객도 477명에서 459명으로 바뀌었다가 선사 측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중대본이 462명이 탔다고 밝혔다. 소재와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284명으로 추정된다.

선사 여직원 박지영(27)씨와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 남학생으로 보이는 다른 1명,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 등 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174명 가운데 55명은 해남, 목포, 진도 등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자 가운데 학생은 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경 총동원 구조작업

해경은 이날 오후 8시께 선체 수색 작업을 일단 중단했다. 잠수부 4명이 오후 6시 30분께 선체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지만 시야가 흐리고 선체에 물이 가득차 실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해경은 물 흐름이 멈추는 정조시간대인 17일 오전 1시부터 조명탄을 쏘아가며 선체 내부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박을 인양할 크레인은 17일 오전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박모 기관장 등 승무원 9명을 목포해경으로 소환,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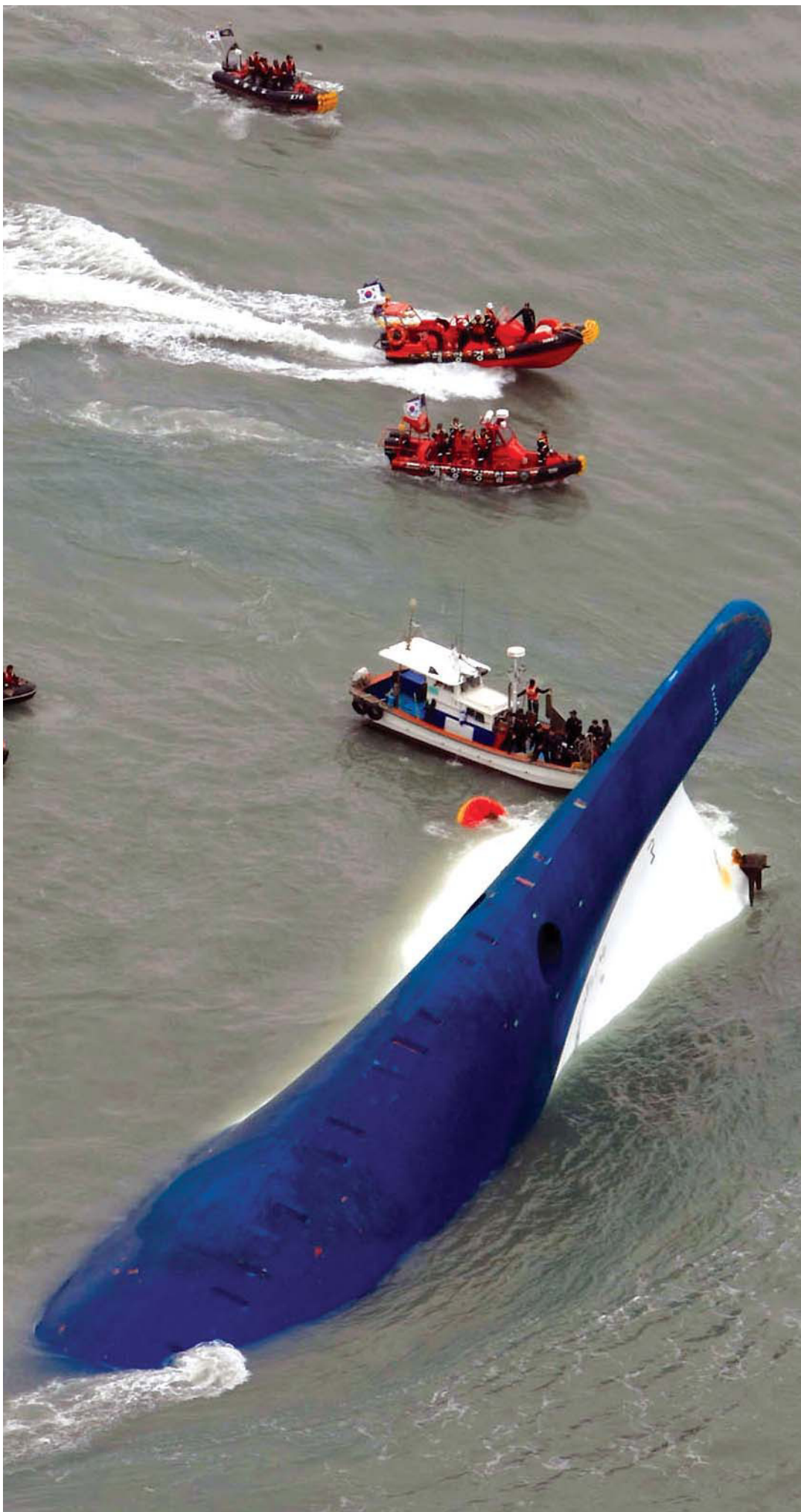
해경은 항로 궤적 등을 확인할 수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확인한 결과 여객선이 사고 30분전 운항속도 19노트에서 사고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오전 8시 52분께 8노트로 급속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승객들이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에 따라 암초나 다른 선박과 충돌 여부도 가릴 방침이다. 또 사고 당시 배 아래에서 '찌지직' 소리가 났다는 일부 증언에 따라 선박에 파공이 발생했는지도 규명하기로 했다.

◆서해훼리호 이후 최악 사고될 듯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이다. 길이 145m, 폭 22m 규모의 세월호는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여객선에 속한다. 지난 15일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이 지연돼 2시간여 늦은 오후 9시께 인천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최악의 선박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살짝 물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는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침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2시간 여 만에 완전히 침몰했다. 해경 및 어선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양사고 '심각' 경보 발령 박 대통령 '구조 최선' 지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해양경찰을 통한 인명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상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가 발령될 때 설치된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해수부는 이날 오전 9시40분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배에 승선해 있던 인원이 워낙 많아 사고를 인지하고 곧장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며 "현재 인명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 상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발생부터 구조 및 수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현정기자

'점자 용산구소식' 발행

서울시 용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 '점자 용산구소식'을 발행한다. 총 100여 권이 발행되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관·동주민센터·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비좁던 도로에 녹지 조성

서울시 동대문구는 휘경로2길(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보상비 포함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의 폭을 6m로 넓히고,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해 미관을 개선했다.

정선옹주 묘역 정비사업 실시

서울시 구로구가 궁동 정선옹주 묘역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궁동 생태공원과 연계해 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쿵' 소리 후 30분 만에 기우뚱

첫 선내방송 "가만히 있어라"…탈출 서둘렀더라면

"'쿵' 소리가 나고 불과 30~40분 만에 90도가 기울어졌어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충돌 사고 후 구조된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탑승객은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구조된 학생 정모(16)양은 "여객선 2층 방 안에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밖에 나와보니 나를 비롯해 아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정 양은 "큰 충격은 못 느꼈고 곧 바로 원상복구될 줄 알았다"며 "넘어진 아이들은 좁은 방안에서 칸막이 등에 충돌하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위로 여행가방과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학생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 양이 있던 방에는 학생 8명이 있었으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2학년 2반 전모, 유모(16)양은 "아침을 먹고 2층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음성이 나와 대다수가 침착하게 지시에 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10여분 후에 선실 위로 탈출할 힘이 남은 학생들만이 커튼과 고무호스를 잡고 안간힘을 다해 바깥 계단으로 나와 헬리콥터를 탔다며 선실에 남은 학생들이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울먹였다.

한 달에 수차례 진도~제주도를 오간다는 화물기사 10여명은 "배 항로의 변경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평소 운항 때와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바다의 파고는 잔잔했고 안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모포를 뒤집어쓰고 "00야 어디 있니"라며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나 선생님들을 찾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부상자 응급실 치료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부상자가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신 발견되자 구조대 비명

진입로 좁아 수색 어려움

16일 오후 5시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대원, 해경 대원들이 고무보트와 고속단정 5~6척에 나눠 타고 수색작업에 나섰다.

세월호 선수 옆 면에 여러 가닥의 밧줄을 옭아매고 산소 호흡기를 등에 멘 SSU 대원 2명이 침몰한 세월호 선미 부분에서 물 속으로 잠수했다.

1분 여를 물 속에 있던 SSU 잠수대원들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고무보트에 탑승한 지휘대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다시 수색을 이어갔다. 1시간 가량 지난 오후 6시께 세월호 선수 부분으로부터 약 50m 지점에 미리 잠수해 있던 잠수대원 2명이 고개를 내밀었다.

SSU와 해경의 고속 단정 2대가 빠르게 잠수대원 쪽으로 접근했다. 잠수대원 쪽으로 고속단정이 다다르자 한 여성대원의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곧바로 주변의 해경 경비정으로 시신을 옮긴 후, 헬기로 다시 육지로 이송했다.

이날 잠수수색에 돌입한 SSU 대원들과 해경은 조명등과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배 안 진입로가 비좁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색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

"걱정마 여긴 안전해" 승객 중 구조된 학생들이 교사로 보이는 남성에게 위로받고 있다. /연합뉴스

280여 명 왜 탈출 못했나

대형 카페리 세월호 대피로 찾기 쉽지 않아

여객선 세월호 침몰 때 승선원 462명 중 65%인 280여 명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라면 승객 대부분이 잠들어 선박에 갇힌 채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침수 신고가 해양경찰에 최초 접수된 시각은 오전 8시58분으로, 승객들이 여객선 내 구명조끼를 찾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해양경찰에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탈출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접수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 세월호는 이미 60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 정도 기울기라면 갑판에 나와 있던 승객이나 선실 안에 있던 승객이나 모두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다.

선박 객실 배치도를 보면 총 9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은 선박 3~5층에 있다. 1~2층은 기관실과 차량 적재칸 등이 있어 객실이 없다. 3층은 단체 플로어룸, 패밀리룸 등을 갖춰 428명을, 4층은 같은 종류의 객실로 484명을, 로얄실이 있는 5층은 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선원을 제외한 승객 447명은 3층에 87명, 4층에 353명, 5층에 7명이 각각 나뉘어 객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객들이 객실에 남아 있었는지, 로비로 나와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내부 구조가 복잡한 선박 특성상 배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면 대피로를 따라 대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객선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여객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그만 배라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세월호는 대형 카페리이기 때문에 대피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서해훼리호 악몽 재연되나

93년 292명 사망…남영호·극동호·충주호 사고 잇따라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62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경과 경찰·소방본부 등이 합동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에도 국내에서 대형 여객선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남영호 침몰 사고

1970년 12월14일 오후 4시께 승객 338명을 싣고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한 여객선 남영호는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대마도 서쪽 100㎞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326명이 숨졌다. 선체와 화물 등 모두 1억7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적재량을 초과한 과적, 항해 부주의, 긴급신호 발신 후 신속하지 못한 대처 등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호 화재 사고

1987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군 남부면 다포리 '솔뚜껑' 해상에서 관광객 86명을 태우고 해금강 관광에 나섰던 24t급 목조유람선 '극동호'가 화재로 침몰했다. 기관실 엔진 과열이 원인으로 관광객 2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당시 사고 유람선의 기관사는 무자격자였으며, 엔진고장이 잦아 한 달 새 5차례나 정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1994년 10월24일 오후 4시1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앞 충주호를 지나던 54t급 충주호 유람선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정원이 127명인 이 유람선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134명이 타고 있었다.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것이다. 여기에다 유람선 안에 화재 진압용 소방정이 없었으며 구명조끼도 정원수만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3년 10월10일 오전 10시10분께 낚시꾼 등 326명을 태우고 가던 서해훼리호가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출항 당시 파고가 2~3m로 좋지 않았으나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너울파도에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원이 221명이었던 서해훼리호에는 모두 362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구명조끼 등이 모자라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292명이다. 특히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로 손꼽힌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헬기로 구조되는 세월호 승객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해양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뉴스Y 화면 캡처

침몰 한때 '전원 구조' 문자…학부모 '분통'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 측이 한때 '전원구조'라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원고는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한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에게는 1시간 가량 늑장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오전 11시 9분께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통보하고 11시 25분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라고 2차 공지했다.

단원고 측도 10시 5분께 일부 학부모에게 120여명이 구조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학교로 몰려온 학부모들에게도 구두로 "오전 11시5분께 모두 구조됐으니 안심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오께 공식발표로 구조자 중 사망자가 있다고 밝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1시30분께 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생사 불명이라고 발표했다. 더욱이 단원고는 사고 소식 통보를 받고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윤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 참관수업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최근 '연극·뮤지컬 공연 기획' 참관 수업의 일환으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를 관람했다. 학생들은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의 정종임 예술 감독과 박선희 연출가를 만나 공연 기획 전반에 대해 학습했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특강

서울여대는 15일 교내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업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안 소장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 살리는 길에 대해 강연했다.

홍익대, DAFUL 기증받아

홍익대는 15일 버추얼모션(주)으로부터 190억원 상당의 공학용 소프트웨어 DAFUL 60카피를 기증받았다. 홍익대는 기증 받은 DAFUL를 각종 기계시스템의 다물체 구조 동역학 및 구조역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모저모

병원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조된 탑승객들이 팽목항으로 이동, 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 해역 오늘 온종일 비 내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 해역에 17일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진도 해역이 포함된 서해 남부 먼바다에 이날 오전 6시부터 온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사고 해역에서 바람은 초속 8~12m로 불고, 바다의 물결은 1~2m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세거나 파고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조대 왔으니 끊을게"

○…"'엄마 구조대 왔으니 끊을게' 한 게 마지막 전화에요."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여객선을 탔다 16일 오전 침몰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손을 꼭 쥐며 서로 다독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70여명이 모여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는 실낱같은 희망과 절규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오전 9시 44분 통화기록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긴 A양의 어머니는 "바다가 이렇게 찬데…. 어떻게 살아요"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크레인 빌려 여객선 인양"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측은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을 빌려 여객선을 인양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김재범 기획관리부장은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했다는 해경 측 발표에 대해 "평소 다니는 항로로 이동했고, 안전 항로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모(69)씨 등 선원들은 구조돼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세월호, 개인배상 3.5억 보험 가입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 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윤다혜기자

'담배소송' 192개 의회·단체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회 및 각종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담배소송 지지 성명이 확산되고 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회 등 20개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24개 의약단체, 5개 소비자·시민단체 등 총 192개 의회와 단체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담배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육기관 및 각종 종교단체들이 전폭적으로 담배소송 지지 결의 및 선언을 했다.

'러브 벤치' 앉으면 어떤 느낌?

metro Russia

이색 아이디어 눈길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и аллею арт-скамеек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유즈노 프리모르스키 공원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벤치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벤치들은 앉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는데, 연인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와 반지를 모티브로 한 '러브 벤치'가 단연 인기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의 벤치'라는 이름으로 기획됐다. 프로젝트를 지휘한 큐레이터 아르좀 돌고프는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 팔걸이용 선반이 설치된 '독서 벤치',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로 꾸민 '행운 벤치'가 특히 인기"라며 "현재 7개의 벤치만이 설치됐지만 이달 말까지 모두 30개의 벤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 '25 카드르'의 안나 루키나는 "우리는 페테르부르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인의 벤치 역시 시민들이 눈으로 즐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선뜻 나섰다"고 프로젝트 지원 취지를 밝혔다.

/안나 감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우울증 진단' 대학 동아리 화제

metro France

프랑스 리옹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 동아리가 이색 프로그램을 내놨다.

압시튜드란 이름의 이 동아리는 지난해 '포르트 타포르트'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독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정신과 의사와 의대생들이 대학 기숙사 세 곳을 돌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숙사의 방 1500여개를 방문해 869장의 설문지를 돌렸다.

압시튜드의 회장 파니 소바드는 "응답자의 60%가 외롭다고 답했으며 72%는 기숙사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동료가 많다고 답했다. 이게 심화될 경우 수업에 빠지거나 우울증까지 겪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23%는 지난해 정신적으로 고독함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5%는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했다.

파니 소바드 회장은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으면 한다. 대학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브라질 월드컵 개최 반대!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월드컵 반대 시위에서 한 시민이 가짜 해골이 들어있는 관을 들고 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브라질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지인들은 보건,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예산이 월드컵 개최 준비에 쓰이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첫 교전 사상자 속출

정부군·시위대 4명 사망…푸틴 "내전 직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 시위대 간 첫 교전이 발생해 15일(현지시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 인근 군용비행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분리주의 의용대와 충돌, 의용대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 발생 직후 의용대가 퇴각했고 우크라이나군이 비행장을 장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비행장에는 60여대의 탱크와 장갑차가 배치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비행장 상공에 헬기가 출현해 지상에 사격을 가했고 전투기가 저공비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갈등 상황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내전 직전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스위스 제네바 회동을 통해 사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사국 회동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연합(EU), 미국 등 4개 당사국이 참여한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군사 대응을 옹호하며 추가 제재에 대해 언급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도발(분리주의 시위)에 정부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점령·병합되자 푸틴 정권에 세 차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대화 없는 직장인… 소통시간 불과 23분

대다수 직장인이 부족한 소통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이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평균 23분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평균 근로 시간 9시간의 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응답자의 76%는 "직장 내 대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에는 '눈치가 보여서'란 답변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가 많아서' '메신저로 대체해서' 등이 거론됐다. 간접적인 대화 수단으로는 '전화'와 '메신저'가 압도적이었다. 회사에서 업무 회의를 제외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직원 휴게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실' '사무실 복도 및 비상구' '카페'가 뒤를 이었다. 한편 동료와의 대화 기피 이유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가 60.8%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18.2%) '업무에 방해된다'(10.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장윤희기자 unique@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1992.21 (−0.06)

코스닥 565.96 (+3.85)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환율(원·달러) 1038.80 (−2.70)

모델 하우스서 연예인 사인회까지

분양 이색 이벤트 풍성… 승마·신차 전시회 눈길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4만6000여 가구의 신규분양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마다 봄나들이 관람객을 붙잡기 위한 이색 마케팅 경쟁이 한창이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은 기본. 연예인 사인회부터 승마이벤트, 신차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놀거리가 제공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충주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개관일에 맞춰 오는 18일 개그우먼 김영희 씨의 사인회를 진행한다. 유행어 "앙~대요!"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 씨는 '충주2차 푸르지오' 라디오 광고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이외 멤버십카드 작성 후 계약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50인치 스마트 TV(1명), 자전거(3명), 디지털 체중계(5명)를 추첨해 나눠주는 경품행사와, 견본주택 방문 후 응모권을 작성만 해도 쌀 5Kg(150명)을 추첨해서 주는 이벤트가 개최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한강센트럴 자이' 분양을 앞두고 사전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우선 'All ABOUT 한강신도시'를 슬로건으로 '도전! 미션을 완성하라!'와 UCC공모전, 사진공모전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김포시 소속 축구단인 FC김포 축구경기를 응원, 지역 축구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마케팅을 진행해 친근감을 더했다.

박희석 GS건설 분양소장은 "분양을 앞두고 각종 공모전과 축구 마케팅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중"이라며 "특히 향후 지역을 대표할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공모전을 통해 활성화된 김포를 알리는데 앞장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청마의 해를 맞아 승마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앞에 준비된 말을 직접 타보고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포드자동차와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달전리 '북한강 동연재' 타운하우스의 주택전람회 및 신차전시회를 열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팔면 해당 주택을 사고도 자동차를 바꿀 자금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포드자동차 고급 브랜드 링컨의 최신 중형 세단인 'MKZ', SUV모델인 '익스플로러' 등이 전시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앙증맞은 골프 피규어 1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에서 고객들이 골프 피규어 '핏그린'을 조작해 보고 있다. 핏그린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등 4개의 클럽을 갈아 끼우며 피규어의 스윙을 조작할 수 있고 공을 쳐 홀에 집어넣으면 된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1430명 중 겨우 1명

10대 그룹 여성 임원

국내 10대 그룹에서 여성이 임원에 오를 확률은 1430명 중 1명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0대 그룹 93개 상장사의 3월말 기준 남녀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은 94명으로 전체 여직원 수 13만912명의 0.07%에 불과했다. 이는 1만명 중 7명만이 임원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2012년 0.06%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남성 임원은 5605명으로, 전체 남자 직원 49만3997명과 비교해 승진 확률이 1.13%였다. 임원 비율 '1% 법칙'을 넘어섰고, 여성 임원 승진 확률과 비교하면 16배 높은 수치다.

남녀를 합친 10대 그룹 임원 수는 5699명이었고,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임원 중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등기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여성 등기임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등 4명이고, 최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 등기임원도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선임된 여성임원은 41명이었고, 이 중 18명(44%)이 삼성전자 소속이었다. 현재 여성 임원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삼성그룹으로 조사됐다.

/김태균기자 ksgit@

1000만원 이상이면 정밀 추적

은행, 직원 간 거래 실시간 감시 … 특단 대책

은행들이 직원 사이의 돈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소집에 맞춰 내부통제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직원의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 금액이 드나들면 상시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고객과의 금전 대차가 엄격히 금지되는 데 더해 직원 사이의 금전 대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정상적인 돈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조사나 회식비 등이 아니라면 금액이 많지 않아도 직원 간 돈거래가 자주 이뤄질 경우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일선 점포에서 고객이 여러 계좌로 거액을 분산 예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지면 본점 감찰부서가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소명을 요구한다.

신한은행은 1000만원, 외환은행은 3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외점포에 대한 은행 본부의 제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쿄는 부동산 대출 위주, 런던은 기업 대출 위주 등 지역마다 다른 사업모델과 특성을 반영해 TF가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일반 해외점포는 20~30%,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뉴스&뉴스

수박 사세요~ 16일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모델들이 경남 함안산 친환경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제공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세

● KB국민은행이 전국의 오피스텔 1147곳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임대 수익률은 연 6.0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말(연 6.11%)보다 0.04%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월세 공급이 많고, 일반 소형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면서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국세청, 포스코 검찰 고발

● 지난해부터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포스코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포스코 본사와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횡령 의혹 등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된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국체청의 고발 사건을 당초 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다른 부서로 재배당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탁기자

연금복권520 제14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5조	9 3 7 9 9 0
		7조	4 3 0 5 0 2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7 2 2 0 7 3
4등	100만원	각조	9 1 3 1 3
5등	2만원	각조	9 7 5
6등	2000원	각조	15 , 30
7등	1000원	각조	4, 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잠자는 포인트 통합조회로 한번에

신용카드 현명하게 쓰는 법… 해지·탈회 구분해야

직장인 윤혜진(28)씨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가 워낙 많은데다 열심히 모아둔 포인트가 소멸될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용카드 해지시 쌓아둔 포인트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해지만으로 포인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카드를 묵혀 두기보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라고 지적한다.

◆포인트 한눈에 정리해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7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량은 약 9900만장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3.9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윤씨의 경우처럼 카드 발급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 실제 지난 2012년 한해동안 활용되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128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버려진 포인트가 연평균 1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잠자고 있는 자신의 포인트를 깨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유 카드와 포인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신협회는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와 스마트폰 '카드 포인트 조회' 앱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만으로 어떤 카드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포인트 소멸 일정 등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주 거래 카드와 보유 포인트를 한눈에 보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적립 포인트는 상속 가능

카드를 없앨 때에는 해지와 탈회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해지는 해당 카드만 더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치지만 탈회의 경우 해당 카드사의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포인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

이 경우 같은 카드사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에게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탈회 전 공과금 납부, 항공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1포인트만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이 개선하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카드 가입시, 열쇠모양 확인"

6월부터 한장 설명서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가입 고객은 가입 전 알아야할 핵심내용을 한장의 설명서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신규 회원 모집 시 고객의 주의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글씨 크기가 작고 내용이 많아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약관을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했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 한 장만으로도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와 모집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및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신고 및 보상 등 카드 이용 시 주의할 사항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코스닥 훈풍에 중소형주 펀드 '활짝'

수익률 5.77%… 가치·대형주보다 높아

국내외 증시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올 들어 펀드 수익률은 중소형주가 가장 좋고 가치주, 대형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 72개(이하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평균 5.77%로 집계됐다.

가치주 투자 펀드 106개도 올 들어 0.85% 성과를 냈다. 반면 대형주 945개 펀드는 -2.07%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펀드 중에서는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증권자투자신탁 1'과 'LS KOSDAQ Value 증권투자신탁 1(주식)Cf' 등이 10% 안팎의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

가치주 펀드로는 '미래에셋엄브렐러가치주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종류C-i'가 13% 넘는 성과를 기록했고 대형주 펀드 중에선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이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류용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서비스업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따른 수혜 중소형주가 유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1@

너무 내린 환율, 수출주 상승 발목 잡나

IT·자동차주 우려… 철강·정유주는 기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원화가 과도하게 너무 움직였다는 것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선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이들의 실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원화 강세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철강과 유틸리티, 정유주 등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의 흐름을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원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업종별 순환매에 있어선 원화강세 수혜주와 피해주 구분에 따른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의 환율 방향성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안화 약세가 멈춘다면 외국인이 갑자기 차익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프리미엄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와 서울시 등이 16일 서울광장에서 '자투리땅 초록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열고 시민에게 미니화분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 간담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6일 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휴대전화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경쟁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 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는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사업자 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제도 시행 시점은 현재 영업정지 상황임을 고려해 5월 말이나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의 투명한 선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시네뷰로 즐겨라 LG전자가 주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IPS(In-Plane Switching) 패널을 탑재한 시네뷰 모니터 '34UM65' '25UM65'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네뷰 모니터는 일반 영화관 스크린과 비슷한 21대9 화면 비율로 2012년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제품이다. /LG전자 제공

갤S5 제조원가 26만6000원 추정

전작 갤S4보다 3만원 비싸

갤럭시S5 분해 견적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5를 해체한 결과 부품과 제조비로 256달러(약 26만6000원)가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작 갤럭시S4보다 하드웨어 부품가가 30달러(3만1000원) 더 높다.

다만 이번 추정가에서 소프트웨어와 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IHS는 갤럭시S5가 출고가로만 판매될 경우 삼성전자가 60%의 이윤을 남길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비싼 부품은 5인치 화면 모듈로 63달러(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제품도 33달러(3만4000원)가량 사용됐다.

메인 칩은 퀄컴 스냅드래곤 801로 이전 칩보다 속도가 빨라졌다. 갤럭시S5의 대표 기능인 지문 인식에서 센서 가격은 4달러(4150원)로 추정됐다. 갤럭시S5 헬스 케어 기능을 완성한 심박 센서의 부품 가격은 1.45달러(1500원)로 추측됐다.

IHS는 갤럭시S5 해체 분석에 대해 "전작보다 특별하지 않다(no breakthroughs)"고 밝혔다. 심장 박동 모니터와 지문 인식 센서도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갤럭시S5의 흥행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IHS는 "이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5는 전작보다 많이 팔리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팔릴 것(selling better)"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매력적 수익률·안정적 조기상환 눈길

신한금융투자 '첫스텝 85 지수형 ELS'

신한금융투자는 지수형ELS(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운용 노하우를 살려 선보인 '첫스텝85 지수형ELS' 상품이 10주 만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85를 첫 스텝으로 삼아 첫 번째 평가일의 조기상환 가능성을 76%로 대폭 높였다.

코스피지수가 1950포인트일 때 가입했다면 첫 조기상환일에 1657.5포인트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되는 구조다. 지수가 300포인트가량 떨어져도 조기상환이 가능한 셈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스텝다운 상품의 경우 첫 조기상환에 실패하면 2~3번째까지 조기상환을 달성하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빈발했다.

또 보통 코스피200·HSCEI·유로스톡스50의 3가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상품은 100을 첫 스텝으로 했을 때 41%, 95로 했을 때 59%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기상환율을 나타낸다.

최영식 신한금융투자 OTC팀 부장은 "고객의 목표수익률(5~8%)에 따라 낙인·노낙인, 6개월·4개월 자동상환, 6개월 이후 매달 자동상환 등 다양한 구조의 ELS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뿐더러 안정적인 조기상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수형 ELS 뿐만 아니라 금·은·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첫스텝 85 DLS(파생결합증권) 상품들도 함께 선보였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이 회사가 판매한 공모 지수형 ELS 가운데 만기 1년이 넘는 지수형 ELS 456개 상품이 모두 수익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평균 수익상환 기간은 약 7개월(218일)로 1년 안에 수익을 실현했다. 연간 수익률은 연 10.07%였다.

회사 측은 "특히 이들 상품은 금융위기 당시 홍콩 항셍지수가 76% 급락했음에도 불구, 수익상환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카약,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롯데마트가 16일 서울 영등포동 빅마켓에서 '제벡 어드벤처 카약'을 시세 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어2·기어핏, 갤럭시 기기 16종 연동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2'와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이 국내 출시된 16종의 다양한 갤럭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선보인 '갤럭시S5'를 비롯해 '갤럭시S4', '갤럭시 노트3' 등 스마트폰 13종과 '갤럭시 노트 프로 12.2' 등 태블릿 3종이다.

삼성 기어2와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 사용자들은 '삼성앱스'를 통해 각각 기어 매니저와 기어 핏 매니저 앱을 다운로드하면 기존 갤럭시 스마트 기기와 삼성 기어 시리즈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스펙보다 능력좋은 인재 뽑는 방법은"

상의, 채용컨설팅·역량 평가 무료 제공

'학벌·스펙보다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이 학벌·스펙에서 벗어나 직무역량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채용컨설팅과 직무역량 평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사업'의 일환이며, 올해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한다.

대한상의가 제공할 직무역량 평가서비스에는 ▲역량지원서 ▲역량면접 ▲역량테스트 등이 포함됐다.

역량지원서는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이력서에서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거주지·재산내역·가족사항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직무관련 수강과목·교내외 경험·인턴 근무경험 등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항만을 기재토록 설계된다.

또 ▲단순 질의응답 위주의 기존 면접방식에서 벗어나 과거 경험을 통해 직무 관련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면접' ▲업무상황에 대한 상황판단능력을 알아보는 '상황면접' 도구를 서비스한다.

직무 모의상황으로 구성된 '발표' '그룹토의' 방식의 면접도구도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역량에 맞게 제공된다. 신입직원의 조직적응 인성과 직무에 필요한 적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직군별 인성검사와 직무적성검사(K-TEST)도 서비스한다.

이밖에 선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인재상과 역량에 맞는 채용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은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스펙초월·능력중심 채용이 중요한 화두지만, 정작 기업은 직무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채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직무역량평가 사업이 기업에 스펙 대신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대나무 숯땅콩·바지 주세요"

글로벌 이코노미

대만 업계 정부 지원 힘입어 이색 제품 내놔 '호평'

플라스틱 제품에 떠밀려 설 자리를 잃었던 대나무 제품들이 대만에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다. 단순한 죽제품에서 벗어나 참숯 양말과 건강식품 등으로 획기적인 변신에 성공한 덕분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권에서도 대나무는 반듯함, 견고함,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긴다. 대나무로 만든 제품들은 특유의 매력으로 오랜 세월 중국인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도시화·현대화 바람이 불면서 대나무 제품을 찾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었다.

과거에는 뗏목이나 지붕, 신발과 가구, 농기구 등을 만드는 데 대나무가 사용됐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소재를 선호하고,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에서 저렴한 대나무가 수입되면서 대만 대나무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대나무 마을'로 불리는 난터우현 주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전에는 수백 가구가 대나무 제품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50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가 대나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면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1999년 난토우현을 뒤흔든 대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황폐해지자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특명을 받은 대만 산업기술연구소(ITRI)는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특히 ITRI는 고품질의 대나무 숯과 섬유를 만들어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샴푸, 방충제, 양말, 구운 땅콩, 바지 등은 과거 대나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제품들이다. 이 가운데 최고 히트 상품은 땅콩 표면에 대나무 숯을 입힌 '숯땅콩'이다. 대나무 숯땅콩은 천연 웰빙 식품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다.

1970년대 대만에서는 매년 대나무 1300만 그루를 수확했다. 연 매출은 350만 달러(약 36억4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수확량이 167만 그루로 급감, 매출은 45만 6000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몇 년 간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매출은 겨우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대나무 비즈니스'는 젊은 세대들이 가업을 물려 받으면서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린 리웨이(36)는 대학을 졸업한 뒤 타이페이의 우체국에서 근무했다. 한 달 월급은 600달러였다. 박봉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린은 대나무 귀이개를 만들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부친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세련된 감각의 대나무 시계와 램프 등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부자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00달러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대나무로 만든 램프를 들고 있는 린 리웨이. /BBC

美 디트로이트 빈집 '1000달러'

도시 황폐화 막기위한 고육지책… 인터넷 경매 시행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빈집을 1000달러(약 104만2000원)에 매각한다. 빈집이 늘면서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시는 '이스트 잉글리시 빌리지'의 주택 15채를 다음달 5일 인터넷 경매로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매는 '빌딩 디트로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 사이트에는 경매예정 주택의 리스트와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일부 주택의 경우 사진상 외양은 괜찮지만 가구나 보일러가 없는 등 문제가 많아 낙찰 가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소식이 나오자 일반인은 물론 투기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는 투기 세력이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간주에 거주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을 달았다. 또한 낙찰자는 6개월 안에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에 거주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매각은 도시 폐허를 막기 위한 디트로이트시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디트로이트 시는 19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쇠락에 따른 인구 감소로 빈집과 빈건물이 늘고 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조선미기자

무슨 내용이길래…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십' 최고위급 회담에서 반기문(왼쪽) UN 사무총장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경제 살아나나

1분기 성장률 7.4%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성장률 7.7%와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치인 7.5%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 전망치인 7.3%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조8213억 위안(약 213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늘어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8.7% 증가해 전망치인 9.0% 증가를 밑돌았다.

1분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6조8322억 위안(약 1138조원)으로 명목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해 18.0%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5339억 위안(약 255조원)으로 16.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6조2081억 위안(약 1034조원)으로 명목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한편 1분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4% 줄어 들었고, 수입액은 1.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규모는 1% 줄었다.

/김민지기자 minji@

레고처럼 조립하는 스마트폰 나온다

구글 '아라폰' 공개… 내년 1월 시판 목표

장난감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의 컴퓨터 역사박물관에서 15일(현지시간) 개막한 '아라 개발자 회의'에서 조립식 스마트폰인 '아라'의 시제품 실물을 공개했다. 구글은 전날 아라 계획의 모듈 개발 키트(MDK) 버전 0.10을 개발자에게 공개한 뒤 개발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아라 계획은 직육면체 모양의 케이스로 스마트폰의 골격을 만들고 그보다 작은 직육면체 모양의 부품 모듈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색상부터 디스플레이·키보드까지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글은 내년 1월 아라 계획의 첫 작품으로 '그레이(회색) 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화면, 배터리, 프로세서, 와이파이 모듈만 넣어 공급하고 나머지는 조립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크기는 20㎜ 단위로 표준화돼 그레이 폰의 골격에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이 폰의 부품 원가는 약 50달러로 예상되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라 계획 책임자인 폴 에레멘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치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처럼 스마트폰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닐로 밀봉 포장된 아라폰을 동네 편의점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야구장서 응원만? 'IT 도우미' 챙겨가실께요~

올림푸스 '이글아이' 선수 얼굴 찰칵
소니 'DEV-50V' 나만의 3D 영상 척척
'T베이스볼' 놓친 경기 장면 바로 확인

한 야구 마니아가 올림푸스의 'SP-100EE'로 응원하는 선수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올림푸스 제공

프로야구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초보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푸른 잔디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긴 하지만 처음 찾은 야구장 열기에 쉽게 동화되긴 힘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야구 도우미'로도 진화하고 있는 IT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선수의 모습을 눈앞에 담을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응원 구호를 따라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다.

◆선수들 땀방울까지 생생하게

"선수 얼굴도 보이지 않네." 야구장에 처음 방문하면 이런 한탄이 나오곤 한다. 지정석 등이 아니면 선수들의 윤곽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장과 자석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올림푸스가 최근 선보인 콤팩트 카메라 'SP-100EE(이글 아이)'가 유용하다.

DSLR이 아닌데도 35mm 필름 카메라 환산 기준으로 24mm~1200mm 초점거리를 지원하는 광학 50배의 강력한 줌 렌즈를 탑재했다. 내장된 디지털 슈퍼 줌 기능과 결합하면 최대 100배 줌, 2400mm 상당의 초망원 촬영도 가능하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세계 최초로 도트 사이트(조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는 조준기) 조준 방식을 채택해 저격수가 사용하는 총에서 나오는 붉은 레이저처럼 뷰파인더(VF)의 표시된 초점만 맞추면 된다.

외야석에서도 좋아하는 선수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멋진 장면은 3D로 촬영

선수들의 진기묘기를 3D 영상으로 담는 것도 가능하다. 소니의 디지털 쌍안경 'DEV-50V'는 최대 2.5km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는 AF 기능과 '뉴 광학식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를 통해 최고 배율의 망원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도 충분할 정도다.

특히 3D 영상 촬영까지 가능해 직접 찍은 멋진 장면을 집에 있는 3D TV를 통해 생생하게 다시 보는 재미도 맛볼 수 있다.

◆어려운 응원가도 신나게

야구장을 처음 찾는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각 구단의 응원 구호다. 이럴 때 두산베어스·LG트윈스 등 각 구단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선수별로 각기 다른 응원가는 물론 선수·코칭스텝·감독·치어리더 등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응원 열기에 빠져 중요한 장면을 놓쳐도 걱정없다. SK텔레콤의 'T베이스볼'에서는 놓친 장면을 뒤로 돌려 다시 볼 수 있는 타임머신 기능을 제공해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인기 애니 '곤' 올레TV에서… 올레TV는 호기심 많은 아기공룡 곤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곤'을 16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파트1 60편, 파트2 18편 등 총 78편을 안방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 /올레tv 제공

클라우드-빅데이터 경계 사라진다

MS 'SQL서버 2014' 출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6일 'SQL서버 2014'를 전 세계 동시 출시했다. 데이터센터에 최적화한 이 제품은 ▲업계 최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위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내장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 제공 ▲파워 BI(비즈니스인텔리전스) 등이 한층 강화된 고성능 빅데이터 솔루션이다.

이전 버전인 SQL서버 2012 대비 평균 30배 향상된 성능, 100배 빨라진 조회 속도, 5배의 확장, 90% 디스크 공간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MS는 SQL 서버 2014 출시를 필두로 클라우드 OS 전략의 일부인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OS 전략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을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계 없이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이다.

MS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지구촌 흔드는 한국 콘텐츠 명성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만화가 김진은 1992년 월간 만화 잡지 '댕기'에 '바람의 나라'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손자이자 3대왕인 대무신왕(무휼)의 이야기를 판타지풍으로 다룬 이 만화는 국내 콘텐츠 비즈니스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만화 연재 4년 만인 지난 1996년 국내 대표 게임 업체 넥슨이 동명의 온라인게임을 만들었다. 이 게임은 전 세계 최초의 온라인 RPG로 인식되고 있으며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를 이끄는 김정주 대표가 주식 자산 기준 국내 2위 부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의 나라' 덕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공연 단체인 서울예술단에서 역시 같은 이름의 뮤지컬을 제작했다. 뮤지컬 '바람의 나라'는 이후 2년에 한 번 꼴로 재공연을 하면서 '명성황후' '영웅' 등과 함께 국내 창작 뮤지컬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뮤지컬 '바람의 나라'도 수많은 고정 팬을 양산해왔고 다음달 5월 예술의전당 무대에서는 인기 아이돌 엠블랙의 지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더 많은 마니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에는 같은 이름의 소설이 나온 데 이어 2008년에는 드라마 '주몽'으로 국민배우로 우뚝 선 송일국이 무휼로 변신한 드라마 '바람의 나라'가 방영돼 호응을 얻었다.

만화 작가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 22년을 거치면서 게임, 뮤지컬, 소설, 드라마로 변신했고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원소스 멀티 유즈'의 대표 성공 사례로 손색이 없다.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재미를 본 넥슨은 또 다른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10대 유저에게 큰 인기를 얻자 이를 학습용 만화로 변신시켜 대박을 터뜨렸다.

지금도 대형 서점 어린이 코너에는 '코믹 메이플스토리'라는 타이틀을 단 '수학도둑' '한자도둑'과 같은 책이 판매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은 얼마 전 또 다른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의 게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소설 '마비노기 더 드라마 이리아'를 출간했다.

앞서 2012년에는 '마비노기'를 주제로 인터렉티브 아트, 비디오 아트, 조각, 유화 등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험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색 전시회가 서울 신사동 갤러리에서 열렸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을 통해 접했던 비디오 아트를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었던 독특한 행사였다.

문화 콘텐츠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1980년대 주윤발·장국영을 거쳐 90년대 뉴키즈온더블락·토미 페이지, 2000년대 배트맨·반지의 제왕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를 강타했듯이 지금은 우리의 게임과 만화, 노래가 지구촌을 흔들 태세다.

'리니지' '크로스파이어'와 같은 온라인게임, '꽃보다할배'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영상물, '으르렁' 등의 가요가 언제 어떤 장르로 바뀌어 지구촌 친구들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할 지 모른다.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봄 정취를 맛볼 수 있다. /고창군청 제공

"청보리밭 정취 맛보러 오세요"

19일부터 전북 고창 '청보리밭축제' 열려

넓디넓은 보리밭의 색다른 풍경 속에서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3일간 전북 고창군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열리는 '청보리밭 축제'가 그 주인공이다. 청보리밭이 주는 봄의 정취를 만끽해보자.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곳

축제에서는 먼저 보리밭과 관련된 행사와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풋풋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보리밭길을 걸으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보리밭 사잇길 추억만들기가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청보리밭 도깨비 이야기길 인형극과 다양한 공연도 준비된다.

또 보리 및 보리새싹 전시관이 운영되고 관광객 어울마당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방송해주는 청보리 방송국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청보리밭 시골길 자전거 타기, 이야기 속 보리밭 걷기, 보리밭 승마 체험 등이 이어지며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랠리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보리밭이 주는 최고의 선물!

보리개떡·보리빵·보리커피 등 보리음식 시식회와 보리새싹 강정·쿠키·떡볶이 만들기가 방문객의 입맛을 책임진다. 나무목걸이, 편백향 주머니 만들기, 보리새싹 염색, 전통놀이 등의 체험학습 행사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부대행사로 차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우리 가족 이야기 방송과 전북 푸른 음악회, 클나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에 열리는 키즈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에게 주는 올 봄 최고의 선물이다.

더욱이 보리밭에는 포토 정원인 청보리 동산이 조성돼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봄 향기의 즐거움을 느끼세요

축제와 함께 고창은 봄 맞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가득하다.

선운산 도립공원에서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백 숲을 거닐 수 있으며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운사의 봄 향기도 즐거움을 더한다. 선운사 근처에는 고창의 먹을거리로 유명한 풍천장어와 복분자주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줄지어 있어 맛있는 힐링도 가능하다.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밀집된 곳으로 청동기 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다.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있어 현장 학습지로도 안성맞춤이며 고인돌박물관도 놓칠 수 없는 고창의 명소다.

또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1453년에 축성된 고창읍성은 벚꽃과 철쭉이 만개해 봄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인기가 많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전북권협력단은 축제 기간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주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4월 19일~5월 11일
- 장소: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
- 문의: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063)560-2600

'봄꽃 찾아 가족여행' 다음달 첫 관광주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광주간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관광지 할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주간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요를 키우기 위해 기획된 제도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선 '봄꽃 찾아 가족여행'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를 오픈해 다양한 행사와 할인 쿠폰 등 관광주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관광주간에는 서울 4대 궁 및 종묘 주간 입장료가 50% 할인되고 어린이날에는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26개 지역의 시티투어 상품이 할인되는 동시에 특별 시티투어가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107개의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관광주간에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에 근로자 휴가 사용을 장려토록 요청했으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현재 121개사, 2470명 모집)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구석구석

◆김제 모악산축제
- 날짜: 4월 18~20일
- 장소: 전북 김제시 모악산 도립공원

전주와 김제 금산사를 잇는 벚꽃길과 천년고찰인 금산사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특히 금산사에는 수만 그루의 40~60년생 왕벚나무가 있어 벚꽃이 만들어 내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벚꽃길을 걸으며 ▲불교(금산사) ▲천주교(수류성당) ▲개신교(금산교회) ▲원불교(원평교당) 등의 다양한 종교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다.

◆부산 연등축제
- 날짜: 4월 18~27일
- 장소: 부산 용두산공원

높이 10m가 넘는 각양각색의 대형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창작 등 전시회와 등불 행렬, 전통문화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비롯해 통기타 연주·창극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진다. 특히 26일 오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신안 튤립축제
- 날짜: 4월 18~27일
- 장소: 전남 신안군 신안튤립공원

'바다와 모래 그리고 300만 송이 튤립의 대향연'이다. 축제에서는 국내 유일의 사막에서 피는 꽃과 색깔·모양이 각기 다른 튤립 100여 종, 300만 송이가 연출하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신안 새우 전시회와 말 조형물, 풍차전망대, 튤립 파라솔 등의 각종 조형물들이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패션업계, 여름상품 '당기고 늘리고'

일찍 온 더위에 여름용품 매출 전년비 2배↑

최근 패션기업들은 때이른 여름 날씨에 일찍이 봄 상품 물량을 축소하고 여름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패션기업 세정의 웰메이드는 여름상품 출시를 2~3주 앞당기며 전 브랜드에 걸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웰메이드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인디안은 지난 달 중순부터 여름 상품 매출이 꾸준히 늘기 시작해 전년대비 같은 기간 판매실적이 162% 신장했다. 여름상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약 15%P가량 증가했다. 웰메이드 측은 길어진 여름에 맞춰 성하(한여름) 제품들을 별도로 구성해 매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여성복 브랜드 앤섬은 가벼운 소재의 재킷류가 인기를 끌며 여름상품 매출이 전년대비 73% 올랐다.

SPA형 브랜드 웰메이드 프로덕트는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린넨 소재의 여성 7부 남방이 현재 인기가 좋아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리비아로렌 역시 여름상품 출고 시기를 2주 정도 앞당기고 물량을 15% 가량 늘렸다. 이 브랜드는 지난 3월 한달 간 여름 상품 판매율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폴리 소재의 간절기용 재킷과 여름용 7부 티셔츠의 판매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 전개하는 캐주얼 브랜드 갭(GAP)은 3월 한 달 간 반팔 폴로셔츠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회사의 여성캐주얼 브랜드 지컷에서는 지난 달 블라우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나 상승했고 브랜드 보브는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데님 원피스와 롱셔츠를 출시하며 매출이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의 빈폴과 바이크리페어샵은 반팔 티셔츠 등 여름 상품을 예년보다 2주 빨리 입고시키며 생산 물량도 20~50% 늘렸다.

LF의 닥스와 헤지스 등도 여름 상품 출시를 3월 중순으로 당겼다. 마에스트로는 봄과 여름 물량 비중을 35대 65로 대폭 조정한 것도 특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의 럭키슈에뜨는 올해 신상품 중 여름 제품 비중을 70%까지 확대했고 신원의 이사베이는 봄 상품 물량을 지난 해보다 30%가량 줄이는 대신 여름 원피스 물량을 약 2.5배 늘렸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제1회 풋살 히어로즈 개최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는 중학교 풋살대항전인 '제1회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 히어로즈 2014'를 개최하며 오는 27일까지 참가학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홍명보장학재단이 함께하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동아전람, 리빙페어 등 주최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5회 서울 홈&리빙페어' '제3회 서울 판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 '2014 서울 차·공예 박람회'가 오는 24~27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가전·주방용품, 홈인테리어, 판촉 및 선물용품, 차·공예품 등을 전시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혜인기자

JAL, 서울~도쿄 개설 50주년

일본항공은 지난 15일 서울~도쿄 노선 개설 50주년을 맞이해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에키 요시하라 일본항공 사장 등이 참석해 한국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일본항공은 지난 1964년 4월 15일 당시 대한항공 공사(현재 대한항공)와 계약을 맺고 서울~도쿄 노선에 주3회 운항을 시작했다. /정혜인기자

金으로 치장한 1900만원짜리 선글라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강남점 1층 아트리움 행사장에서 벤틀리 최상의 자동차인 뮬센 모델을 모티브로 제작된 오스트리아 벤틀리 선글라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8K 옐로우골드와 펠러듐·화이트골드 등 화려한 자재로 만들어 1900만원을 호가하며 전세계에서 연간 100개 한정으로 제작되며 국내에는 연간 2~3개 정도만 수입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결혼정보업체, 주의보 발령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1분기 동안 58건으로 작년 1분기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등이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프리미엄 한식도시락' 출시

잡곡밥에 불고기 등 15가지 반찬…맛·영양 듬뿍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맛은 물론 영양이 듬뿍 담긴 전통 한식 도시락을 출시했다.

강강술래는 영양잡곡밥(흑미밥·차조밥)을 비롯해 버섯불고기·삼색전·더덕구이·후식과일 등 총 15가지의 반찬으로 구성된 2종의 '정성도시락(1만원·1만5000원)'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 매장에서 최소 3일전 전화 또는 방문 주문이 가능하며 필요한 날짜에 주문한 매장에서 픽업해가면 된다(최소 30개 이상 주문가능). 100개 이상 주문시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무료로 배달해준다. 대표문의 및 접수처는 늘봄농원점

(031-965-2300)이다.

또 이달 20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일체 넣지 않은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50g)은 3만6000원, 20봉은 7만1000원,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3세트)'는 2만16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360gX3박스·4만2000원)'와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3만88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서울우유, 소지섭 모델 선정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는 자사의 대표 슬라이스 치즈 '체다'의 광고 모델로 배우 소지섭을 선정했다. 소지섭은 지난 12일부터 '잘난 체다' 광고에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잘난 체다' 광고는 1984년 출시 이후 30년간 대한민국 슬라이스 치즈의 대표로 자리매김해 온 '체다 치즈'의 면모를 명품 배우 소지섭에 빗대어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N.A COMPANY
www.namc.or.kr
MUSICAL
LES MISERABLES
국립중앙박물관 「오르세미술관전」 기념공연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동의 창작뮤지컬
2014/ 4/ 18/금 ~5/ 21/수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수요일
목요일
예매시 아버지 1000원!!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과 함께하는 특별한 할인 이벤트!!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을 위한 파격 이벤트!!
※인터넷 예매처 적용 가능합니다. 원더플 대디 권종을 선택해주세요.
문의전화 인터파크 1544-1555 극장용 1544-5955
위 번호로 전화예약후 본 권을 절취해 가져오시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가능하십니다.
할인예약
1661-6981
VIP 50.000 → 30.000
R 40.000 → 24.000
S 30.000 → 18.000

"고객망 구축 통합 CRM시스템으로 소통 강화"

대박 '애경박스' 기획…애경산업 김영락씨 고객 관리 노하우

애경산업의 CRM파트에는 낭랑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하는 '청일점' 사원이 있다. 바로 그 김영락 사원의 휴대폰에는 400명이 넘는 '여사님'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여사님이란 마트·수퍼 등 현장 판촉 여성 직원을 업계용어로 칭하는 말. 그는 회사번호가 아닌 개인번호를 공유해 문자 및 카톡을 주고받으며 현장 판매 여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객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전공 살려 고객 데이터 전산화

대학에서 산업정보시스템을 전공한 김영락 사원은 졸업 후 한 철강회사에서 전산관리, DM구축과 같은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전공과 경력을 활용해 애경산업 CRM파트에 입사하자마자 사소한 고객정보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는데 공을 들였다. 현장 판매 여직원 교육도 시작했다. 전국 지점 및 판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품 판매 시 고객응대 법과 고객노트 관리법 등 고객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그는 실적이 좋은 현장 판매 여직원에 관심을 기울여 사기를 증진시켰고 400여명의 현장 판매 여직원의 의견을 가급적 모두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등 진정성을 보였다. 그 결과 기존 3000명 선이었던 선물세트 재구매 고객을 1년 만에 1만명으로 늘렸다. 신규 고객과 재구매 고객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정보와 현장 판매 여직원들이 직접 기록한 고객노트를 취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였다.

이렇게 현장 판매 여직원에게 전달받은 구매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객 클레임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추석 기준 8억원이었던 CRM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을 올 설에는 2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신장시켜 지난 3월 단기성과포상을 받기도 했다.

◆7번 재구매한 고객도 생겨

김영락 사원은 한번 구매한 고객에게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답례품 등의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선물세트를 구매한 이후의 고객관리에 주력했다. 일반적으로 명절선물세트는 시즌을 앞두고 사전 고객관리만 진행한다. 그러나 김영락 사원은 고객을 차별화하지 않았다. 재구매 고객이나 고액 구매자 중심이 아닌, 단 한번이라도 애경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로 인해 재구매율이 3.3배 늘어났다.

그는 특별히 애경의 신제품으로 고객 답례품을 구성했다. 랜덤박스를 기획한 것이다. 일명 '애경박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해 박스에 어떤 제품이 있을지 기대감을 유발하고 가장 최근의 신제품으로 구성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뜻하지 않은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물세트를 최대 7번까지 구매한 고객도 있는데 이는 4년 연속 명절마다 애경 선물세트만 구매한 셈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김영락 사원은 "현장에 있는 판매 여직원들과 소통이 편해지면서 그들이 잘 팔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곧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브랜드 별로 고객망을 구축해 통합CRM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동안 유선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소통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아웃도어 주요 고객 된 어린이 1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어린이용 침낭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592% 급증하는 등 어린이 아웃도어용품 매출이 전년보다 71%나 신장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월트디즈니 공식 캠핑용품을 출시하고 텐트·체어·침낭 등 다양한 키즈 아웃도어용품을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초특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데상트 트레일레이스 불암산 둘레길 뛴다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가 오는 26일 '제2회 트레일레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1회 때보다 3배 많은 규모로 열린다.

서울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불암산 둘레길을 포함한 12㎞ 챌린지 코스와 6㎞ 펀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도보와 자연길이 지난해보다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러너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학철기자

맥코트·데님재킷, 간절기 잇아이템

최근 일교차가 큰 봄 날씨에 스타일링이 쉽지 않은 남성들은 맥 코트와 데님 재킷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슈트는 봄 기분을 내기에는 까다로운 패션이다. 매일 같이 슈트를 입어야 하는 남성들이 밝은 컬러의 데일리 맥 코트를 매치하면 전체적인 톤을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다.

맥 코트는 날씨가 변덕스러운 영국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방수기능과 방풍기능이 탁월하다.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간절기 남성 아우터로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깔끔한 네이비 컬러의 슈트에 레드 컬러나 원색의 맥 코트를 걸치면 포멀하면서도 감각적인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번 봄 비즈니스 캐주얼은 화려한 패턴과 컬러가 특징이다. 상의는 깔끔한 화이트·네이비·블랙 컬러에 은은한 패턴을 더한 셔츠와 니트가 유행할 전망이며 하의는 다양한 컬러가 돋보이는 롤업 팬츠가 주목받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간센터/췌장·담도센터 개소 및 간이식 1주년 기념 행사
일시 : 2014년 4월 10일 12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간센터·췌장담도센터 1주년 기념식

간이식 수술 100% 성공 축하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 간센터·췌장담도센터가 지난 10일 개소 1주년을 맞아 의료진과 환자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겸 간센터·췌장담도센터장과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장 등의 의료진과 함께 첫 번째 간이식 수혜자인 최명순(51)씨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국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센터를 소개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최씨 가족은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대목동병원이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센터는 간이식 수술 100% 성공 등 중증질환 치료 분야에 큰 성과를 남겼다"며 "중증질환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병원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센터가 문을 연 4월 10일은 이대목동병원이 첫 번째 간 이식수술을 성공한 날이기도 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메이크 유어 무브'로 영화배우 첫 발 뗀 보아

'아시아의 별' 보아(28)가 데뷔 14년 차에 배우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뗐다. 17일 개봉할 할리우드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를 통해서다. 인기 댄스영화 '스텝업' 시리즈의 원작자인 두에인 애들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에서 보아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건너온 뒤 탭댄스를 추는 백인 도니(데릭 허프)와 춤으로 소통하며 사랑에 빠지는 재일교포 아야 역을 맡았다. 개봉을 하루 앞둔 보아의 표정은 신인배우 특유의 설렘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 영화배우로 관객에게 인사를 앞둔 소감은.

쑥스럽다. 지난해 시청자들이 KBS 2 2부작 '연애를 기대해'를 보고 좋은 평가를 해줬지만 3년 전에 제작된 이번 영화야말로 내 첫 작품이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시사회 후 반응이 나쁘지 않아 한시름 놨다.

– 영화 데뷔작으로 할리우드에도 진출한다.

처음엔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다. 그동안 바쁘게 가수 활동에만 매진했다. 그러나 댄스영화라는 점에 끌렸고 찍으면서 연기에 매력을 느끼게 돼 한국으로 돌아가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다. 할리우드 진출작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춤을 오래 춰온 사람으로서 내 춤을 작품으로 남긴다는 게 가장 기쁘다.

– 배우 및 스태프들과 깊은 정이 들었을 것 같다.

미국에서 5개월동안 붙어 살아서 가족 같았다. 데릭과는 안무신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연습실에서 계속 함께 춤만 췄다. 신인 때보다 더 열심히 췄던 것 같다. 데릭도 나도 춤을 오래 춘 프로 댄서라 서로가 잘 보이게 끔 펼쳤던 경쟁들이 시너지를 내 높은 퀄리티의 댄스신이 완성된 것 같다.

–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본 타악기 타이코 드럼부터 탭댄스, 현대무용까지 배웠다. 힘들었다. 가장 어려운 건 영어 대사였다. 미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사이에서 떠보이지 않게끔 발음 코치도 받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한만큼 뿌듯하면서도 아쉽다.

– 연기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연기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고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줬다.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으며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내가 가장 선배라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또 가수는 각자 대기실에 숨어 있는데 배우들은 영화 촬영장에서 함께 떠들고 연기해서 즐겁다.

– 가수로서 슬럼프를 겪은 때는 없었나.

내가 이렇게 오래 연예인을 할 줄 몰랐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산 시간보다 앞으로 연예인으로 살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럴거면 즐겁게 일하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생활을 10년 넘게 반복하면서 버겁게 느껴지긴 했다. 그러던 차에 '메이크 유어 무브'를 만나 내가 몰랐던 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춤은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교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가수 활동 버겁게 느껴질 때 연기 만나
> 내년 데뷔 15주년, 연예계에서 잘 버텨
> 일에 바빠서 연애 '썸' 탈 시간은 없어 ”

– 내년이면 데뷔 15주년인데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열심히 잘 살았고 연예계에서 잘 버틴 거 같다. 앨범 수록곡 중에 '네모난 바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나도 열심히 굴러서 둥그러진 느낌이다. 많이 이겨냈기에 앞으로 이 직업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5주년 앨범을 계획하고 있다.

– 요즘 '썸' 타는 게 유행인데 연애 계획은.

'썸' 타는 남자는 싫다. 확실한 게 좋다. 무엇보다 너무 바빠서 '간' 볼 시간이 없다. 하하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다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기다린 게 아까워서 멋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든다.

– 배우로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어릴 적에는 영화관에 내가 나오는 영화가 걸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거니까 차근차근 집중해서 하고 싶다. 현재 '빅매치'를 촬영하며 진중하게 연기에 임하고 있다. 올해 '메이크 유어 무브'와 '빅매치' 두 편을 선보이니 기대해달라.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새로운 인생 열어준 연기 설레요"

진도 여객선 참사 연예계도 애도

정규방송·영화 행사·가수 팬미팅 줄줄이 취소

진도 여객선 사고로 연예계도 침통한 분위기 속에 깊이 애도했다.

16일 오전 전남 진도에서 4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자 방송·영화·가요계는 슬픔을 함께하며 정규 편성과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지상파 3사는 사고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연예·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대부분 뉴스 특보로 대체했다.

KBS1은 17일 오전 1시10분까지 뉴스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생로병사의 비밀' 등은 방송되지 않았다. MBC는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되는 '뉴스데스크'를 오후 9시 25분까지 확대 편성했으며 이후 방송되는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와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를 취소하고 사고 소식을 전했다.

SBS는 '8뉴스'를 2시간 방송하고 '한밤의 TV연예', 수목극 '쓰리데이즈' 등을 결방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케이블 방송도 이에 동참했다.

CJ E&M에 따르면 17일에 방영되는 tvN 시트콤 '감자별', 엠넷 '엠카운트다운' '블락비의 개판 5분전' 등의 방영이 취소됐다. 19일에는 tvN 'SNL 코리아', 20일에는 '코미디 빅리그' 등이 결방한다. 이외에 OCN, 채널 CGV 등 영화 채널에선 재난영화를 방송하지 않는다.

영화계 행사도 연기됐다. 영화 '인간중독'의 배우와 제작진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애도를 전한다"며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제작보고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로 예정됐던 애니메이션 '리오2' 측은 VIP 시사회 사전행사를 취소하며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배우 및 전문 성우진과 뮤지컬 배우진 모두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일정을 후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8일 예정됐던 영화 '표적'의 예체능 쇼케이스 행사도 취소됐다.

17일 예정됐던 엑소의 언론 인터뷰, 19일 열릴 걸그룹 에이핑크의 데뷔 3주년 기념 팬미팅도 취소됐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드라마 제맛 살리는 OST

가요 일색 탈피… 장르 맞춤 음악 몰입도↑

트렌디한 드라마 OST 대신 특징있는 음악이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 14일'(이하 '신의 선물')과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의 경우 장르적 특징이 강한 만큼 가사가 담긴 곡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정통멜로를 표방한 주말드라마 '엔젤아이즈'(사진)는 팝송을 활용해 첫사랑의 향수를 자극한다.

'신의 선물'과 '쓰리데이즈'는 추리극이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침한 멜로디가 작품 전체를 아우른다.

'신의 선물'의 경우 딸 한샛별(김유빈) 유괴를 둘러싼 김수현(이보영)과 기동찬(조승우)의 추리를 그려내며 남녀 주인공의 멜로가 부재하다. 그룹 B1A4 산들의 '아파서', 그룹 시크릿 송지은의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등 OST가 발매됐지만 서정적인 가사에 부합하지 않는 극 내용 때문에 작품을 통해선 듣기 어렵다.

'쓰리데이즈'도 대통령 이동휘(손현주)를 지키려는 경호관 한태경(박유천)과 대통령을 해치려는 무리 사이의 추격을 담고 있다. 한태경과 윤보원(박하선)의 관계에 동료 이상의 기류가 흐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장박동을 높이는 긴박한 배경음악이 활용된다.

특히 '쓰리데이즈' 6회 엔딩에서 나온 가수 배치기가 참여한 OST는 빠르고 거친 배치기의 래핑으로 극의 특징을 압축했다는 평가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엔젤아이즈'의 OST는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다. 올드 팝송이 대부분이며 순수한 첫사랑을 그려내는 배우들의 감정과 수채화 같은 화면이 어우러져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라쎄린드의 '런 투 유'다. 라쎄린드의 아련한 목소리와 함춘호의 따뜻한 기타연주가 어우러진 이 곡은 윤수완(구혜선)과 박동주(이상윤)의 첫사랑을 향한 두근거림을 전한다.

'너에게 달려가겠다'는 의미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린 윤수완(남지현)의 곁을 지키겠다는 어린 박동주(강하늘)의 마음을 담고 있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메디컬 명품 배우·작가 법정 재회

김명민·최희라 작가 MBC '개과천선'서 호흡

의학 드라마 '하얀거탑'의 김명민과 '골든타임' 최희라 작가가 만나 법정 드라마를 선보인다.

오는 23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수목극 '개과천선'(사진)은 대형 로펌의 냉철한 변호사였던 김석주(김명민)가 우연한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휴먼 법정 드라마다.

김명민은 극중 기억을 잃기 전후가 극명히 갈리는 입체적인 캐릭터 김석주 역을 맡아 복잡한 내면 연기는 물론 카리스마 넘치는 변론 연기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잘 짜여진 시놉시스에 큰 호감을 가졌다"며 "또 김석주가 지닌 묘한 매력에 욕심이 났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김명민과 함께 '개과천선'에서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 역시 쟁쟁하다. 김석주를 냉철한 변호사로 키워낸 로펌 대표 차영무는 김상중이 연기한다. 차영무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김석주와 대립각을 세우며 극에 긴장감을 더하는 인물이다.

또 채정안은 김석주의 약혼녀 유정선 역으로 등장하며 악녀 캐릭터를 주로 맡아온 김서형이 정의감 넘치는 검사 이선희로 변신해 김석주 변호사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3인조 카라 본격 활동

2명 탈퇴 후 첫 팬미팅

3인조로 재정비한 걸그룹 카라(사진)가 팬미팅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니콜과 강지영이 탈퇴한 카라는 박규리·한승연·구하라 등 세 명의 멤버로 팀을 꾸려 다음달 24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과 6월 1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 팬클럽 카밀리아와 함께하는 '카밀리아 데이' 3주년 기념 행사다.

멤버 변동 이후 5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카라는 가장 먼저 팬들 앞에서 공식 무대를 가져 자신들의 진솔한 얘기를 풀어놓을 계획이다. 특히 제2의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카라는 팀 변화로 일본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은 만큼 현지 팬들과의 만남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는 "카라는 이번 팬미팅에서 근황을 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팬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묵묵히 그들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카밀리아 데이'는 카라 멤버들이 팬클럽 카밀리아를 기념하기 위해 2011년 지정한 기념일로, 3년간 크고 작은 만남의 자리가 마련돼 왔다. 팬미팅 참여 신청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카라의 한국·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드라마!

살 아 있 었 네…

★★★★★

갑동이 진짜 안 보면 후회한다. area****

채널 돌리다가 소름돋아서 끝까지 봤다! spla****

몰입 100%! 진짜진짜 대박 드라마! omy4****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와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충격! wn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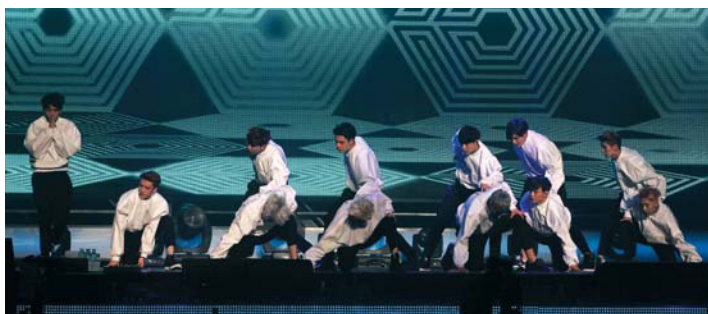
tvN 금토드라마

매주 | 금토 |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실신’ ‘접속폭주’… 엑소타임 스타트

두 번째 미니앨범 ‘중독’ 발표하는 엑소

‘대세돌’ 엑소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던 자리였다.

지난 1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백현·루한·디오·타오·첸·세훈·수호·크리스·시우민·카이·레이·찬열)가 8000여 명의 관객과 마주하며 화려한 컴백쇼를 열었다. 이날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엑소의 몸짓과 손짓 하나하나에 열광했다. 특히 공연 시작 2시간여 전부터 공연장 주변은 팬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엑소가 1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신곡을 소개하고 있다.

◆신인답지 않은 완벽함

엑소는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과 수록곡 ‘런’ 등 신곡 무대와 함께 ‘으르렁’ ‘늑대와 미녀’ ‘히스토리’ ‘마마’ ‘좋아좋아’에 이르는 히트곡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을 열광케 했다.

시작부터 강렬했다. 엑소는 특유의 절도 넘치는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늑대와 미녀’와 ‘히스토리’로 포문을 열었다. 팬들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화답했다. 멤버들은 이번 컴백쇼가 오랜만에 성사된 팬들과의 만남인 만큼 무대 곳곳을 누비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스탠딩석에서는 엑소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관중이 몰리며 실신하는 팬이 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치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H.O.T의 공연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팬과 토크쇼를 진행하며 잠시 숨을 고른 엑소는 ‘마마’의 무대에서 유닛과 완전체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이 외에도 엑소는 히트곡 ‘으르렁’과 리메이크곡 ‘좋아좋아’에 이어 신곡 ‘런’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중독’ 무대였다. 이들은 12명이 따로, 또 같이 열창하고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데뷔 2년차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무대였다.

◆음반시장 넘어 공연계 블루칩

엑소의 성장속도는 LTE급이다. 국내외 음반시장 장악에 이어 콘서트 시장에서도 돌풍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 엑소 컴백쇼 티켓 응모와 당첨확인을 진행한 삼성뮤직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한동안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응모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 ‘엑소 컴백쇼’ 티켓은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등록되는 모습까지 발견됐다.

그러나 이는 예고에 불과했다. 엑소는 다음달 24~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첫 단독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더 로스트 플래닛’을 열고 총 2만 명 이상의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쇼케이스 8000명 열광 콘서트 티켓 확보 전쟁 신보 새역사 수립 전망

하지만 콘서트 티켓 구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공연장에서 만난 한 여고생은 “첫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무척 기대된다”며 “친구들과 티켓 예매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엑소 단독 콘서트 예매 티켓팅 대행’이라는 글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새역사

올해 데뷔 2년차 엑소의 행보는 예측 불가다. 앨범 판매량은 물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엑소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 1집 ‘XOXO’를 100만 장 이상 판매하는 새 기록을 썼다.

100만장 돌파 기록은 김건모 7집, god 4집 등이 발표된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12월 발매한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도 43만장이 판매되며 명실공히 최고의 음반킹다운 파워를 보여줬다.

여기에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으로 3연속 히트를 기록했다. 이 곡들은 음반·음원·음악방송에서 모두 1위를 휩쓰는 대활약을 펼쳤다. 또 ‘멜론 뮤직 어워드’와 ‘2013 MAMA’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도 ‘바이두 페이디엔 시상식’에서 ‘2013 바이두 인기그룹상’, ‘음악풍운방 신인성전’에서는 ‘2013 최고 그룹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연말 시상식을 석권하는 영광을 누렸다.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1위에도 올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스타임을 확인케 했다.

한편 엑소는 엑소-K, 엑소-M으로 나눠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컴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엑소-K는 오는 18일 KBS2 ‘뮤직뱅크’에서, 엑소-M은 오는 19일 중국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각각 신곡 첫 무대를 펼친다. 새 음반은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 버전으로 오는 21일 발매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주현미·심수봉 명품 디너쇼

데뷔 30주년 기념… 빅밴드와 함께 히트곡 재편곡

가수 주현미(왼쪽 사진)와 심수봉(오른쪽)이 명품 디너쇼로 가정의 달을 풍성하게 한다.

주현미는 8일 오후 7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디너쇼를 개최한다. 1984년 데뷔해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 숱한 히트곡을 발표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30년 가수 인생을 총망라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청량한 목소리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려온 주현미는 1980~199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린 이후에도 다양한 시도로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재즈밴드 프렐류드와의 협업 무대를 비롯해 힙합 뮤지션 조PD와 함께 부른 '사랑한다', 록밴드 국카스텐과 함께한 록 공연, 소녀시대의 서현과 함께 부른 세미 트로트 '짜라짜짜', tvN '꽃보다 할배'의 주제가 참여와 KBS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진행 등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어왔다.

주최측은 "수준 높은 음향과 화려한 무대연출, 최고급 만찬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팔색조 주현미만이 소화할 수 있는 화려한 무대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며 "주현미의 히트곡 퍼레이드는 감동과 추억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수봉은 같은날 오후 7시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4 어버이날 기념 심수봉 디너쇼'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엔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등 히트곡들을 트로트·재즈·포크·국악·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로 재편곡해 부른다. 심수봉 전속 빅밴드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뛰어난 연출과 어우러져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심수봉은 재즈풍의 피아노 연주와 1970·8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통기타 연주 등으로 다양한 매력을 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트버스터 흥행 바통터치

'부다페스트 호텔' 이어 '온리 갓…' 주목

영화 '온리 갓 포기브스'(사진)가 아트버스터 열풍에 합류한다.

아트버스터는 예술성을 갖춘 블록버스터라는 뜻으로 관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 개봉한 웨스 엔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개성 있는 연출력과 회화적인 화면, 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아트버스터 열풍을 이끌어 왔다.

24일 개봉하는 '온리 갓 포기브스'는 환락과 폭력으로 물든 도시인 태국 방콕에서 살해당한 형의 복수를 위해 나선 한 남자의 잔혹한 복수를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누아르로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과 라이언 고슬링이 재회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드라이브'에 이어 '온리 갓 포기브스' 또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작품성을 입증한 이번 작품은 과감한 수위의 액션은 물론 정교한 프로덕션 디자인과 화려한 미장센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콕을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풍광, 복싱과 무에타이를 결합한 새로운 격투신, 색채 대비와 명암을 극대화시킨 조명과 적재적소에 삽입된 슬로모션, 절제된 카메라 워크로 화면을 채웠다. 여기에 일렉트로닉 사운드, 오르간 연주 음악을 망라한 사운드 트랙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

'드라이브' 이후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이 많은 메이저 스튜디오의 러브콜을 고사하고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만큼 어느 때보다 강렬한 작품세계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독립영화, 상업영화 흥행 넘본다

'한공주' '시선' 등 해외 호평 수작 잇따라 개봉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독립영화들이 상업영화와의 경계선을 허물고 흥행을 노리고 있다.

'한공주'가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극장 측의 요청으로 181개 상영관에서 17일 개봉한다.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받은 호평과 시사회 후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상업영화 못지 않게 많은 상영관을 확보했다.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과 CGV무비꼴라쥬상 수상을 시작으로 마라케시국제영화제 금별상,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타이거상, 도빌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상·국제비평가상·관객상,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 대상 등을 휩쓴 수작이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쫓기듯 전학을 가게 된 공주(천우희)가 새로운 곳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장호 감독의 19년 만의 신작이자 독립영화인 '시선'(사진)도 105개 상영관을 확보했다.

16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가상 국가 이스마르로 기독교 선교 봉사활동을 떠난 9인의 한국인들이 이슬람 반군들에게 납치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광록이 선교사로 출연한다.

이 밖에 24일 개봉 예정인 '10분'과 '셔틀콕'도 독립영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10분'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KNN관객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하고 올해 프랑스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대상과 INALCO 스페셜 페이버릿상, 홍콩국제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받았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셔틀콕' 역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과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먼저 인정 받았다. /탁진현기자 tak0427@

코리안 하프 페스티벌 내달 개최

제2회 코리안 하프 페스티벌이 다음달 4~5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과 콘서트홀에서 각각 열린다.

축제는 신예 하피스트들의 라이징 스타 콘서트로 시작된다. 4일 IBK챔버홀에선 최근 일본·헝가리·프랑스 등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한국 신예 하피스트 이우진·황세희·윤수민·김지영·이수빈과 아시아 신인 하피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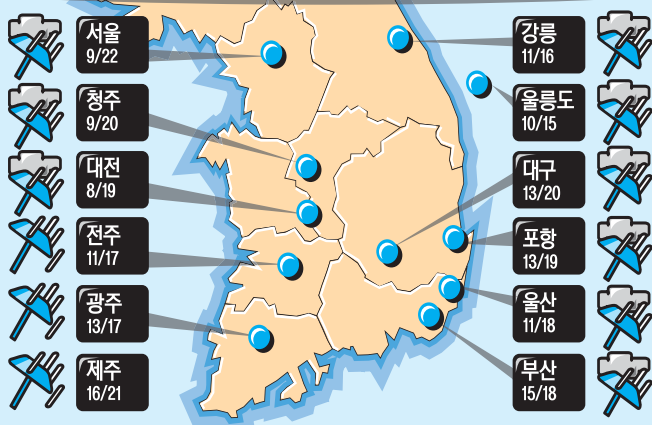
5일 콘서트홀에선 어린이날 하프 콘서트가 열린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곽정과 마리아 루이자가 무대에 오르며,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장난감 교향곡'과 소프라노 박성희의 '인형의 노래'도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코리안 하프 페스티벌은 2012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며 하프 대중화를 위해 기획됐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날씨

4/17 木 일출시각 05:55 일몰시각 19:0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와 인두염, 부비동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 날씨에 따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3	6
	3			8	2			1
		5			6			
5			1				6	
9			8	6	3			5
	2				9			8
			4			9		
7			2	9			5	
4	5				7	2		

		3						
1			6		3	4		5
7		6					3	
	1		3	6				
6		5	7	4	1	9		8
				9	5		6	
	6					2		9
3		8	1		2			7
						1		

스도쿠 정답

2	8	7	9	5	1	4	3	6
6	3	4	7	8	2	5	9	1
1	9	5	3	4	6	8	7	2
5	7	8	1	2	4	3	6	9
9	4	1	8	6	3	7	2	5
3	2	6	5	7	9	1	4	8
8	6	2	4	3	5	9	1	7
7	1	3	2	9	8	6	5	4
4	5	9	6	1	7	2	8	3

6	5	3	8	2	4	7	1	9
1	8	2	6	7	3	4	9	5
7	4	6	5	1	9	8	3	2
2	1	9	3	6	8	5	7	4
6	3	5	7	4	1	9	2	8
8	7	4	2	9	5	3	6	1
5	6	1	4	3	7	2	8	9
3	9	8	1	5	2	6	4	7
4	2	7	9	8	6	1	5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싼 게 비지떡? … 다이어트에 비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실속 없이 겉모습만 그럴 듯하게 꾸민 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보고 비지 먹고 용트림한다고 말한다. 비지가 그만큼 별 볼일 없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이니 비지로 만든 음식이 대접받기란 애당초 쉽지 않다.

오죽하면 우리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를 비지 공사(渣豆腐工程)라고 했을까? 비지 공사는 강도가 떨어지는 조악한 콘크리트가 비지처럼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생긴 말로 1998년 당시의 주룽지 총리가 양자강 홍수예방 공사가 부실에 날림인 것을 비판하면서 유행했다.

비지는 싸구려의 대명사다. 하지만 형편없는 재료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은 진작부터 성호사설에다 비지 예찬론을 펼쳤다.

"콩은 오곡 중 하나로 유용한 작물이지만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며 "맷돌에 갈아 핵심으로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만으로 국을 끓여도 구수한 맛이 먹음직스럽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도 맛있는데 콩물을 빼지 않은 되비지는 영양까지 만점이다. 돼지고기와 김치 송송 썰어 넣고 끓이면 맛까지 일품이다.

비지로 만든 음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는 설화채(雪花菜)가 있다. 비지에 버섯, 갓, 된장을 풀어 끓인 음식인데 마치 눈꽃이 핀 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도 눈꽃요리다. 그러고 보면 하얀 비지가 눈꽃을 닮았다. 일본에도 비지 요리로 우노하나(卯の花)가 있다. 비지에 각종 야채를 넣어 볶은 음식이다.

비지찌개나 설화채, 우노하나 모두 서민 음식인데 요즘은 이런 비지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질 좋은 고단백에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안성맞춤이고 값도 싼데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도 있으니 대중적이다. 때문에 솜씨 좋은 이들은 비지로 직접 쿠키에 도넛, 케이크까지도 만든다. 조만간 여름이 오니 비지 다이어트에 관심이 끌린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변호사 개업 어떤 분야 좋을까 국제법 관련 업무 적성 맞을듯

배두산산 남자 85년 3월 11일 점심후

Q 대학 전공과 맞지 않아 한때 우울증 까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로스쿨로 진로를 정해 공부를해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지금은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야로 일을 하는게 좋을지 염려 됩니다. 변호사 일이란 것이 승소를 전제로 하는 직업이라 아무렇게나 일을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A '가을걷이 들판의 공작형상'으로 식록(食祿)이 풍부한 사주입니다. 학당귀인(學堂貴人)의 명은 일지에 장성(將星)이라 학문을 즐겨하고 문장도 수려한데 사주풀이로 편관 격입니다.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이니 조직으로 들어가 상하구조에서 실무를 좀 더 익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주로 다시 얘기 해본다면 살거선 식거후(殺居先 食居後)로 관살이 년에 있고 식상(食傷)이 일시(생일)에 있는 사주인데 상식도 왕 합니다. 재물도 있겠으나 명예그것이 귀하의 수호신이고 필요한 오행이 되므로 모든 인생행로나 진출의 방향은 관성(官星)에 즉 편관이 수호신이니 국제법 관련 변호를 하면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하려는데 뜻 맞는 사람과 같이하면 성과

까루나 여자 71년 음력 1월 11일 인시

Q 여성복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업무를 하는데 제가 입사하고 회사의 매출과 규모가 엄청 커졌지만 급여는 그대로라 회의가 듭니다. 2002년경에 쇼핑몰을 잠깐 운영한 적이 있지만 경험부족 이었는데 지금 창업을 한다면 경험을 살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창업을 시작해도 좋을까요?

A 긍정적이며 상대방에게 시원한 인상을 줍니다. 사주에 들어있는 재물 궁에서 암록(暗祿)이라 하여 재물에 궁핍함이 없고 귀인의 조력이 있어 식신 생재하는 운에 있으니 인터넷 쇼핑몰은 해도 좋으며 동서남북을 주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능이 많으나 지살(地殺)에 자리를 하고 있어 아쉬운 것은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그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 개인적인 창업보다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모아 합자로 도전을 하십시오. 몇 년 전 사례를 잘 검토 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하세요. 명랑한 것 같지만 돈으로 인하여 재물의 기운이 살로 변하면 우울한 증세가 생기게 되니 이점 참고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7일 (음 3월 1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정도로 가면 걸릴게 없다. **60년생** 서북쪽으론 가능한 출행 말라. **72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계약은 성사된다. **84년생** 학수고대하던 일이 무산되어 허무하구나.

49년생 투자로 인한 피해 조심~. **61년생** 귀한 접대 받을 일이 생긴다. **73년생** 막힌 일은 한 템포 쉬면서 풀어라. **85년생** 계획한 일은 추진하면 순풍에 돛~.

50년생 이익에 연연하면 손해 본다. **62년생** 어렵지만 희망도 있어 휴~. **74년생** 원하던 일이 지체되어 답답하다. **86년생** 실수는 반전의 기회니 낙심하지 말라.

51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마음 비워라. **63년생** 투자 서두르면 자살골 넣는다. **75년생** 시련이 있어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 **87년생** 일이 즐거워 능률도 오른다.

52년생 외출하면 웃을 일 생긴다. **64년생** 뿌리를 찾는 일은 게을리 하지 말라. **76년생** 누군가에 희망을 줄 수 있어 즐겁다. **88년생** 실수한 일은 원점서 재검토할 것.

53년생 술로 인한 탈 조심~. **65년생** 동료와 갈등을 딛고 다시 일어선다. **77년생** 배우자와 생각의 균형 맞추는데 신경 써라. **89년생** 힘은 들지만 기댈 곳이 있어 든든하다.

42년생 기분이 좋아 지갑 연다. **54년생** 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 **66년생**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8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겨 야호~.

43년생 농담 속 진담 잘 파악할 것. **55년생** 철없이 투정부리는 배우자가 얄밉다. **67년생** 조직을 위해 머슴 역할을 자처하라. **79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44년생 배우자 말 듣는 게 좋다. **56년생** 삶이 빡빡한 것은 당연하니 마음 비워라. **68년생** 공들인 일은 성사가 된다. **80년생** 인생엔 변명이 없으니 최선을 다 하라.

45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57년생** 절친한 벗이 희소식 전한다. **69년생** 이성간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 **81년생** 한눈팔고 딴짓 하면 손해만 부른다.

46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손해 본다. **58년생**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엉터리구나. **70년생**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82년생** 차질이 있어도 방향 바꾸지 말라.

47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59년생** 잠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71년생**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니 느긋하게 생각하라. **83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재미가 소소하다.

상처난 자존심 회복투 던질까

내일 샌프란시스코 설욕전 류현진·범가너 마운드 맞짱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사진)이 상처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류현진은 1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서부 지역 최대 라이벌 팀간의 경기이자 류현진으로서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악의 부진을 안긴 팀을 상대로 한 설욕전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류현진은 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홈 개막전에서 2이닝 동안 8피안타 8실점(6자책) 하고 강판됐다. 샌프란시스코는 류현진이 올 시즌 등판한 4경기 중 유일하게 실점을 안긴 팀이다.

18일 경기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실질적인 에이스를 내세우는 경기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류현진은 한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했음에도 2승 1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 중이다.

상대 투수는 매디슨 범가너다. 올해 3경기에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 중이다. 6일 다저스전에서 이미 1승을 올린 바 있다.

류현진과 범가너는 지난해 두 차례 맞붙어 1승씩을 주고받은 라이벌 관계다. 류현진은 지난해 4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6⅓이닝 10피안타 3실점 1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당시 범가너는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6월 25일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6⅔이닝 8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7이닝 5피안타 3실점(2자책)한 범가노는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5경기 2승 2패 평균자책점 2.48로 호투했다. AT&T파크에서는 3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3.20을 기록했다.

5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도 이번 경기의 전망을 밝게 한다. 류현진은 지난해 5일 휴식 후 등판했을 때 7승 1패 평균자책점 2.12로 호투했다.

그러나 '류현진 천적'들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지난해와 올해 류현진을 상대로 16타수 7안타(타율 0.438)를 친 헌터 펜스, 8타수 5안타(0.625)를 기록한 앙헬 파간, 올해 새로운 천적으로 부상한 브랜던 힉스(2타수 2안타) 등 우타자 라인을 압도하는 것은 승리를 향한 필수 조건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ISU, 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접수

대한빙상연맹 서류 확인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가 출전한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 논란에 관한 제소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접수됐다.

16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ISU에 제소 관련 서류를 보냈고, ISU로부터 이를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폴커 발데크 ISU 징계위원장도 이날 독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자신의 역대 3위 기록인 219.1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시 심판진의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피겨 세계선수권대회(3월26~30일)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점을 감안해 대회가 끝나고서 지난 10일에 서류를 보냈다.

/양성운기자 ysw@

KIA 마운드 재정비 반격 개시

한승혁·김진우 선발진 합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사진)가 마운드를 재정비하고 5월 반격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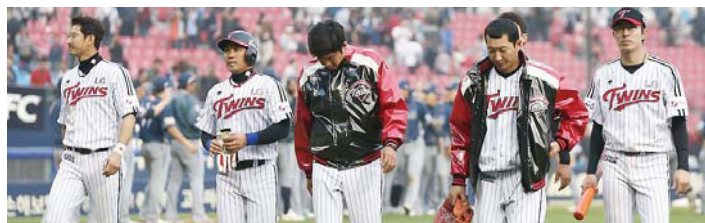
KIA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경기에서 선발 한승혁의 호투를 발판 삼아 5-4로 한화 이글스를 물리쳤다.

5선발 박경태의 부진으로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은 한승혁은 2012년 1군에 데뷔한 이래 첫 선발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믿음직스러운 투구를 펼쳐 선동열 감독의 고민을 덜어줬다.

선 감독은 경기 후 "한승혁이 제 역할을 다해줬다"며 "앞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흡족해했다.

여기에 다음달 오른손 투수 김진우의 복귀와 박지훈·심동섭·유동훈 등 불펜 요원들이 복귀해 마운드에 힘을 보탠다. 또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팀 KIA에 둥지를 튼 김병현까지 1군에 합류한다면 KIA 불펜은 그동안의 불안함을 털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선 감독은 "4월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며 "김진우가 복귀할 때까지 승률 5할만 맞추면 해볼 만 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성운기자

LG트윈스 연장 악몽 언제까지…

1무 3패 득점 '0' 행진

프로야구 LG 트윈스(사진)가 시즌 초반 깊은 시련을 겪고 있다.

팀이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4차례나 연장전을 치르며 체력을 소모했고, 4경기에서 1무 3패를 당해 팀 분위기도 침체됐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나온 6번의 연장전 중 4차례가 LG의 경기다.

지난해 연장전에서 5승 2패로 강했던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장전 투타 성적을 살펴보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LG 타선은 연장전(10회~12회)에서 30타수 4안타(타율 0.133)로 부진했고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했다.

반면 투수진은 연장전 9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3타수 10안타(피안타율 0.303)를 허용하며 6실점(연장전 평균자책점 6.00)했다. 15일까지 LG는 팀 타율 0.278, 팀 평균자책점 4.99를 기록 중이다.

단순하게 시즌 초반 부진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멀리보면 LG에겐 독이다.

LG가 치른 최근 7경기 중 4경기가 연장전으로 이어지면서 선수단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특히 LG의 불펜진은 올 시즌 9개 구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이닝(54)을 소화하며 세 번째로 많은 투구 수(928개)를 기록했다.

이용철 KBS 해설위원은 "연장전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불펜 소모"라며 "LG의 경우, 불펜을 소모하고도 승리하지 못해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 초반 연장전 덫에 빠진 LG 트윈스가 전반기 징크스를 깨고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

프로야구 전적 16일

■ 잠실

팀	1-3	4-6	7-9	연장	계
넥센	200	100	200		5
L G	000	000	020		2

△승리투수=밴 헤켄(3승1패) △세이브=손승락(2패 8세이브) △패전투수=리오단(2패) △홈런=강정호 2호(7회2점·넥센)

■ 대구

팀	1-3	4-6	7-9	연장	계
두산	011	201	000		5
삼성	000	000	000		0

△승리투수=니퍼트(2승2패) △패전투수 = 장원삼 (1승1패) △홈런=홍성흔 1, 2호(4회1점, 6회1점·두산)

■ 광주

팀	1-3	4-6	7-9	연장	계
한화	141	000	020		8
KIA	031	200	000		6

△승리투수=윤규진(1승) △패전투수=임준혁(1패) △홈런=이범호 3호(3회1점·KIA)

■ 사직

팀	1-3	4-6	7-9	연장	계
N C	003	004	000	1	8
롯데	400	003	000		7

△승리투수=손민한(1승 1패) △세이브투수=김진성(1승 1패 5세이브) △패전투수=이명우(2패)△홈런=테임즈 5호(6회2점·NC)